

옛 도랑 복원으로 수질개선 효과 ‘톡톡’

정읍·부안, 주민 대상으로 오염원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7.2ppm 달하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0.9ppm까지 하락

정읍시와 부안군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옛 도랑 복원사업’이 수질개선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내 집 앞 도랑부터 오염원을 줄이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옛 도랑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질개선 효과가 뚜렷하자 시민단체와 함께 이 사업을 점차 넓혀나가기로 했다.

시내 정우면 회룡리 정토마을은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도랑을 복원에 정비하고 수질정화시설을 심은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염원 줄이기 실천운동을 2년간 꾸준히 벌였다. 최근 이 마을 도랑의 수질 분석을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도랑을 복원하기 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이 7.2ppm였으나, 현재는 0.9ppm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는 오는 11월 시민단체인 ‘강 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와 함께 9000여만 원을 들여 시내 소성면 신천리 원천마을에서 2차 사업을 벌이는 등 ‘옛 도랑 복원사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안군도 새만금환경청·부안 강 살리기 네트워크·전북 강 살리기 추진단 등과 함께 옛 도랑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생활·영농폐기물과 불법소각 등으로 오염이 심한 부안군 동진면 운산마을 앞 하천 정화와 복원작업을 벌

였다. 부안군은 친환경 농업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민교육도 벌였다. 정읍시·부안군 관계자는 5일 “예전 물 맑던 도랑을 되찾는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새만금 수질개선 역시 내 집 앞 도랑부터 깨끗하게 가능하므로 시민단체와 함께 도랑 복원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연합뉴스

전주, 대중교통 소외마을

택시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개나리 택시’ 하루 3~8회

운행비 1500원 이내 예정

전주시 외곽 농촌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1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개나리 택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촌 마을 주민들이 대상으로 개나리 택시는 하루 3~8회 운행될 예정이다. 1회 운행비는 1500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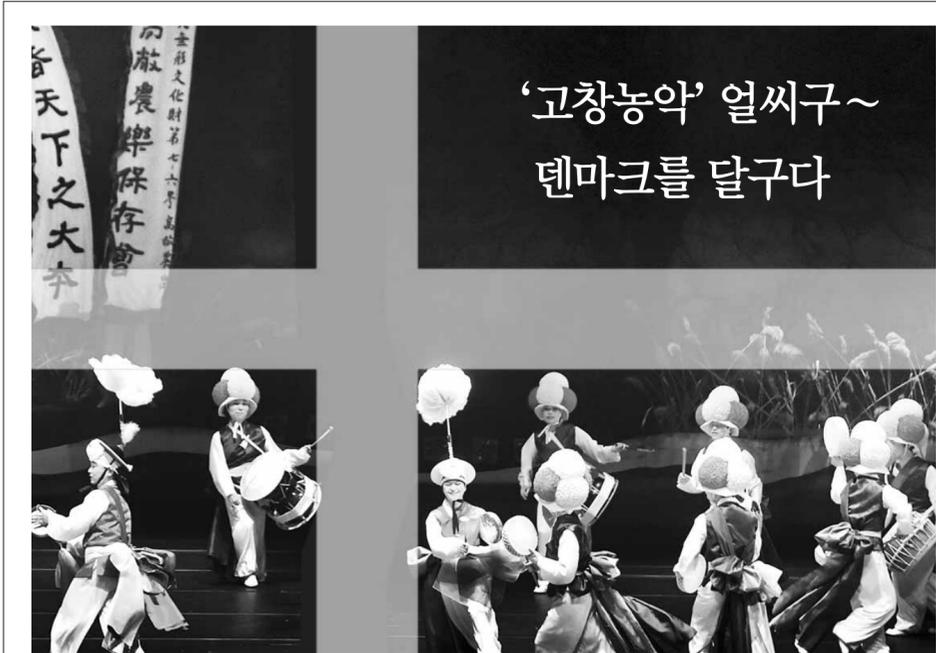
버스 승강장까지 보행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을 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농촌마을 등이 대상이다. 해당 주민은 마을까지 들어온 택시를 타고 전통시장 등 전주시가 지정하는 거점 장소까지 이동한 뒤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시는 조만간 개나리 마을택시 운행 지역과 이용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사업자 공모 및 대상지 방문 설명회를 거쳐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6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부 농촌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시범 운영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창농악’ 열씨구~ 덴마크를 달구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농악을 선보이고 있다.

고창의 전통 농악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단체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덴마크를 방문했다. 이번 덴마크 초청 공연은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국문화주간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농악’을 선보여 한국의 전통 문화의 멋과 흥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덴마크 현지 기준 13일부터 16일까지 외교단 및 덴마크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여하는 주덴마크 대사관 야외정원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덴마크

한국문화주간 초청공연 전통문화 멋과 흥 선사 농산물 홍보행사도 열려

크 최대 음식마켓 ‘Torvehallerne’과 Bevtoft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한국 농산물 및 농식품 홍보 행사에 참여해 농악 특유의 어우러짐으로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전할 예정이다.

또 코펜하겐 시청 앞 광장에서 현지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국과 열두발,

고깔소고, 채상소고, 설장구, 부포놀이 등 개인놀이를 선보인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이번 덴마크 해외 초청공연은 통해 한국전통문화예술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전통민속예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농악 덴마크 초청공연은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6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양봉농가, 등검은말벌 퇴치 ‘비상’

토종 말벌보다 피해 두배

토종 말벌보다 두 배 이상 양봉에 해를 끼치는 등검은말벌 퇴치에 양봉농가가 비상이 걸렸다. 정읍시와 양봉 농가는 동남아와 중국 남부가 원산지인 2003년 국내에 유입돼 급속히 확산하면서 양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검은말벌 퇴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발췌 주 생산지역인 시내 입암면에서 40여 양봉 농가가 참가한 가운데 ‘등검은말벌 방제 평가회’를 열었으며 올해 2000여만 원을 들여 등검은말벌 유인장치와 유인액을 사들여 농가에 나눠줬다.

등검은말벌은 번식력과 공격성이 토종 말벌보다 2배 이상 강하고 꿀벌을 잡아 애벌레의 먹이로 주기 때문에 양봉에 치명적이다. 사람이 쏘이면 목숨을

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생태계 위협성 2급 종이다.

정읍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유인 트랩을 활용한 등검은말벌 퇴치에 나선 결과 꿀벌의 봉군(蜂群: 꿀벌의 떼) 손실률이 10%에서 6%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이 퇴치법의 농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등검은말벌 기술센터 관계자는 12일 “등검은말벌은 특성상 여왕벌 1마리를 잡으면 봉군 1개를 모두 없애는 것과 같다”며 “등검은말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산란 전인 3~5월에 양봉 농가가 일제히 나서 유인 트랩을 활용해 여왕벌을 포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에서는 입암·철보·산내면과 내장산동 등 산간지역 202농가에서 2만 2700여 군(群)의 꿀벌을 기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연합뉴스

‘동리 대상’에 정순임 명창

판소리 전승·보존 공로 인정

(사)동리문화사업회는 ‘제26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정순임(74·사진) 명창을 선정했다.

동리문화사업회는 13일 “정순임 명창은 지난 2007년 경북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판소리의 전승과 보존에 이바지해온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 명창의 어머니 장월중선(1925~1998)은 ‘제6회 동리대상’ 수상자다.

그녀의 집안은 구한말 장판계 명창에서 그의 아들 영찬·수향과 조카 딸 장월중선으로, 장월중선의 딸 정순임·경옥으로 판소리 계보를 이어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판소리 명가 제1호’로 지정했다.

정 명창은 흥보가·심청가·수궁가 등



정순임 판소리는 물론 ‘유관순 열사가’, ‘안중근 열사가’, ‘이준 열사가’ 등 창작판소리의 완창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리대상 시상식은 내달 6일 고창군 고창읍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동리대상은 판소리를 집대성한 고창 출신의 동리 신재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 제정됐으며, 판소리 진흥에 이바지한 국악인이나 국악체육관광부는 2007년 ‘판소리 명가 제1호’로 지정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군산대 인재 양성·진로역량 강화 주력

‘프라이머리’ 비전 선포

국립군산대학교는 13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이머리)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창의적 융합형·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변화 및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체질을 바꾸고 학생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은 융합공대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 전공간 상호 교류, 사회수요와 연계한 교육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기계,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건설공학, 해양운송, 공간디자인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성룡 프라이머리 단장은 “각 분야 간 교육연계·협력관계가 강화돼야 창의적·실무형 인재양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층층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생산지 매 25억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동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9억
 4. 나주시 산포면 신재리 전 배과수원 7,934㎡ 혁신도시 근거리 투자유망 매 6억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
 7. 나주시 노안면 담 4,000㎡ 2차선도로점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적합 매 5억2천만원
 8.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지 지역 전원주택지 적합 매 18억
 9.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10.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관선·전원주택지
 • 담양군 대덕면 전 19751㎡ 투자에도 좋을 3944천
 • 관선 광주평과 화순 온천간 땅 1516㎡ 건물 335㎡ 4억5천
 • 신축 남향 주택 나주시 봉황면 땅 404㎡ 집 100㎡ 농협5천, 1억3천
 • 신안군 지도읍 관리지역 전 13662㎡ 농장·귀농·태양광 적합 1억
 • 화순군 도곡면 드들강변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4억7천
 • 담양군 대덕면 입석리 993㎡, 599㎡, 665㎡ 평당 55만원
 • 정동면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부근 경관좋은 3840㎡ 4억7천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열도리도 부근 2081㎡ 해안가인접 1억 2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산포면 혁신도시인근 땅 29927㎡ 전원주택단지, 관광농원, 요양시설 등 적합 은행 8억5천 공동개발가능 평당 30만원
 • 월산동 다가구 주택 대지 206㎡ 6세대 매도 4억
 • 신안군 지도읍 독립된 섬 46116㎡ 5억 국유지 26823㎡도 함께 있음
 • 두암동 풍산대학 부근 2중주거지 1594㎡ 다세대 등 적합 12억5천
 • 공창 청교동 관산구 송학동 1312㎡ 고속도로에서 5분거리 1억4500
 •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 3838㎡ 과수원·특용작을 적합 4천만원
 • 화순을 계소리 대지와 전 840평 산 2777㎡ 투지에 양호 2억2천
 • 담양군 봉산면 국도점 4489㎡ 요양시설등 적합 8억2천

상가건물
 • 오흥동 삼성전자매 대지 1654㎡ 건물 2992㎡ 감정 55억 은행 25억 매도 38억
 • 월산동 소방도로 대지 149㎡ 건물 177㎡ 식당 3억천 임대도 가능
 • 유동 임북동 대지 238㎡ 건평 152평 임북5, 투룸7 안접 매도 7억
 • 대의동 통부경찰서 부근 대지 235㎡ 건평295평 18억
 • 광천 타미널 부근 화장동 땅 661㎡ 7층 건물 3056㎡ 20억
 • 월산교수서 충정로 방향 80m 2층 건물 땅 132㎡ 건물 147㎡ 1억9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00㎡ 건평 114㎡ 리모델링해이름 1억3천

주택
 • 남구 월산동 대지 144㎡ 2중주택 118㎡ 올리모델링중 1억8700
 • 남구 월산동 2중주택 대지 186㎡ 주택 167㎡ 정원있음 금매 1억46천
 • 쌍촌동 전철역에서 5분 대지 165㎡ 2중주택 132㎡ 보양부대부근 1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옆문앞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4층, 38평 (실22평)
-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 시세 1억
- 매매 - 8500만원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3층, 42평 (실24평)
- 사무실 전용, 코너, 전망좋은
- 시세 1억
- 매매 - 8500만원

비금도 -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4번지
- 임야 2400평, 섬중에 섬
- 장기투자자치 최고
- 시세 1억
- 매매 - 4800만원(조정 가능)

사정상 급매로 팝니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완전 파격 상가 임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인접 신축상가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부영아파트 인접
- 상업지역으로 시비권없음
- 6층건물중 3층 3칸 (약200평)
- 사무실, 식당, 노래방등 전용가능
- 월임대료 1년간 무료.

문의전화

010-3782-736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4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